

개혁신앙을 위한 개혁주의 교리교육의 기여

카린 마그 (Karin Maag) 박사

본 논문에서 저는 개혁신학 연구의 방법과 개혁주의 교육이 더 일반적으로 개혁 신앙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의 연구 분야의 하나는 초기 근대시기의 개혁주의 고등교육입니다. 따라서 저의 연구에서 특별히 제네바와 프랑스, 그리고 화란의 예들로부터 공동체 구성원들을 개혁 신앙의 기초 안에서 교훈하고, 정부와 국가의 차기 리더에 대하여 개혁주의 맥락에서 교육하기 위해 교회와 국가의 리더가 어떠한 협력을 했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예시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초기 근대 유럽의 개혁신앙의 지역에서 목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그들의 회중이 개혁된 예배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와 신앙의 실재를 떠받치는 교리적 가르침을 내면화 하고 이해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을 개혁교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으로 신앙의 가르침을 가져가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리더들은 어김없이 카톨릭의 미신으로 보았던 것과 개혁신앙을 성경과 설교에 기초하여 대조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미신을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관습이나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혹은 그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아무런 이해 없이 사람들이 수행하는 의식들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근대 유럽의 개혁주의 목사에 따르면, 이상적인 개혁교회 신자들은 그들의 개혁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하는 사람들 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지식의 중요성이나 신앙의 이해에 대한 이러한 초점은 종교개혁 시대부터 개혁된 사회의 매우 중대하고도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제네바의 개혁자 존 칼빈이 그리스도의 제자도적 삶을 묘사했을 때 일반적으로 스콜라 크리스티(*schola Christi*)¹⁾ 혹은 그리스도의 학교로 언급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단지 예배에 참석하거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측면들 : 신앙의 형성, 예배, 기도, 성경 읽기와 연구, 섬김은 각각의 신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신자가 시작했던 견습생활(*apprenticeship*)의 모든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회중들이 가지는 신앙의 기초에 대한 참된 이해와 올바른 실천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성취하기 위해 회중들을 훈육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1550년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종교개혁의 첫 세대 종교개혁자의 어려움은 오랫동안 지속된 카톨릭 신앙에서의 신실한 전향의 필요와 개혁된 신앙의 실천에 의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빈 서판(*blank state*)²⁾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중의 구성원들은 단지 교육을 해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교육을 해야 했습니다.

1) in eng. school of Christ

2) *tabula rasa*, 빈 서판은, 곧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개혁자들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참 신앙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카톨릭이라는 이전의 역사적 상황을 안고 종교개혁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역주

많은 회중의 구성원들을 위한 시작점은 교리문답서(catechism)였습니다. 취리히(zurich)에서 종교개혁자 울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와 그의 동료들은 레오 쥬드(Leo Jud)가 준비하고 1534년에 처음 출판된 교리교육서를 사용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존 칼빈은 세례(baptism)와 성찬(Lord's Supper) 이라는 두 성례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라는 주요한 텍스트의 설명을 통해서 개혁 교리의 기초를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는 교리 교육서들 1537년에 목사들이 주일 오후 예배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처음 준비했습니다. 3년의 추방에서 돌아온 후에 칼빈은 비전문가를 위해 고안한 둔답 형식을 표준으로 하는 두 번째 교리교육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텍스트는 1541년에 출판되었습니다.

1563년 처음 출판된,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역시 팔츠에 사는 독일의 개혁교회 신자들을 위해 개혁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기 위해 역시 고안되었습니다. 이들 텍스트의 각각과 이와 같은 많은 문서들은 복잡한 교리적 개념들이 더 쉬운 부분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문답형식은 청취자들이 과정에 참여하고 개혁교회의 기본적인 신조를 배우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제네바에서는 주일 오후 교리문답 예배는 순환 교대에 근거하여 도시의 목사들 중 한명이 인도하였습니다. 예배에서 목사는 교리문답서의 한 문답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고 문답의 중요성과 교리적 근거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칼빈의 1541년 교리교육서는 56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1년 과정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목사들은 텍스트 거의 전체를 꾸준히 다루어 나갔습니다. 예배는 모두에게 열려있었고 적어도 1540년대에는 제네바 인구의 넓은 부분,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예배에 참석했다는 제네바 당회의 기록이 증거로 있습니다.

그러나 1550년대와 1560년대에는 사람들이 늙었고 개혁신앙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독교의 표현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교리문답예배의 대상청중은 점점 더 어린이, 젊은이 하인들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교리교육 예배에 보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다른 어떤 종류의 교육기회를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한편 적어도 제네바에서는 실제로 많은 하인들이 카톨릭 사보이왕가 주변 도시외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네바의 당국자들은 심지어 원주민이 아닌 혼한 카톨릭 하인들을 개혁신앙의 교리교육에 노출시키는 것을 확고히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회에 출석하고, 교리교육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주장하는 당회가 가르치는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 명백히 무지했거나 목사를 개인적 교리 교육을 위해 만나는 1560년대의 제네바 사람들을 통하여 완전한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개혁신앙의 기초교육을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교리교육서 그 자체에 대한 그들의 연구와 교리교육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에 근거해서. 성찬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제네바 사람들은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을 자신의 지방 말로 크게 암송함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했습니다. 목사들은 매분기의 성찬식 전에 가가호호 방문함으로써 그들이 교리교육서의 주요한 텍스트를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사람들의 능력을 확인하였다는 증거가 16세기 제네바에 있습니다. 성례에 처음으로 참가 허용되기 원하는 아이들은 목사들 중 한명 앞에서 교리교육서의 요약을 암송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제네바의 교회는 성례에 대한 접근을 면밀히 관리 했고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기독교신앙의 근본에

대한 기초이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근대 유럽의 대부분의 개혁신앙에서 배우는 두 번째 주된 방법은 설교를 통해 서였습니다. 취리히에서 츠빙글리를 시작으로 해서 그 후에 다른 곳으로 퍼져 나갔고, 개혁교회의 예전 표준은 성경 한 책에 대해서 각각의 설교는 6-7절, 장마다 초점을 맞추어 한 책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 연속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정한 양의 교리적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그들의 청중의 신앙생활을 형성했는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네바에서는 종교개혁 후에 1551년까지는 도시의 세 교회 전부에서 매일 설교예배가 있었고 매주일에는 5번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제네바인 들이 겨우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과 주일만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매주, 매년, 이러한 설교의 연속은 사람을 압도하던지 아니면 지루함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회중의 많은 구성원들이 실제로 주의 깊게 (설교를) 들었으며 강단으로부터 들은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매주 목요일 모임에서 제네바 당회는 지난주일 들었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해 당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 심지어 4일의 갭 차이에도 놀라운 수의 사람들이 설교된 메시지의 골자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몇몇의 경우 1553년처럼 설교는 도시의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도 있었습니다. 그해 11월에 유명한 개혁자 기욤 파렐(Guillaume Farel)이 제네바에서 설교했었는데, 그는 도시의 젊은이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설교를 들은 몇몇은 이후에 파렐이 그들을 무신론자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도시의 행정장관에게 파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설교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은 (대략 2주가 지나서) 행정장관 앞에 나타났고 파렐의 설교로 그들은 감화(edified)되었다고, “그들은 그의 설교에서 거룩함과 선함, 그리고 그들은 유익을 얻었고 가가 청중들에게 했던 권면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설교의 청중들에게 확실히 지루하지 않은 설교의 예가 있습니다.- 사실 파렐의 설교는 회중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설교와 교리교육 예배 말고 적어도 주민의 일부에서는 개혁신앙의 기초를 배웠던 또 다른 주요한 방법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서였습니다. 제네바는 라틴어 학교를 1429년 종교개혁 이전에 설립했습니다(the collège de Versoix). 그러나 라틴어 학교는 소란스러운 16세기의 첫 10년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1536년에 공식적으로 새로운 라틴어 학교(collège de Rive)가 설치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전후 모두 이 학교들은 오직 남자아이들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collège de Rive는 라틴어, 헬라어와 기초 히브리어를 나이든 소년들을 위해 상위 학급에서 가르쳤습니다. 개혁교리는 교리교육서 공부시간과, 매일의 기도와 경건훈련을 통해 학교의 교장에게 배웠습니다.

collège de Rive가 직면해야 했던(종교개혁 초기의 일반적 비판) 주요한 비판 중 하나는 실제로 학교의 교육과정(curriculum)이 너무 경건에 집중되어 있었고 비 개혁신앙의 동년배들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만한 학문적인 연구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정한 신앙의 관점으로 교육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어떠한 교육기관이든 직면하는 지속적인 문제 중 하나를 마주치게 됩니다.

비평가들은 경건이 커리큘럼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교육기관이 제공

하는 교육은 수준이하라는 것을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1538년, 제네바 학교의 교장 앙투앙 솔니에르(Antoine Saulnier)는 학교 교과과정의 기술(description)을 출판하였고 이 이슈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인문학(humanities) 혹은 자유기예(liberal arts)³⁾를 존중하지 않고 마치 복음이 인문학의 적(enemy)인 것처럼 이러한 주제의 흔적을 지우거나 폐지한다고 우리를 주로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기예를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지만, 우리는 조금도 인문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적절하게 추구하고 두 번째의 자리에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개혁주의자들의 학교가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어떻게 개혁신앙의 학교들이 그들이 집중하여 가르치는 신앙과 당시의 학문적인 교과과정의 표준을 가르치는 것 사이에서 바른 균형을 찾으려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collège de Rive에 신입생을 유치하는 것이나 교사들을 유지하는 것이나 썩어가는 오래된 학교 건물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collège de Rive는 개혁신앙의 맥락에서 라틴어 학교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559년 제네바는 이 학교를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제네바 아카데미(the Genevan Academy)입니다. 로잔(Lausanne), 프랑스(France),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있는 유사한 교육기관을 모델로 한 이 학교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라틴어 학교 교육과정과 제네바의 젊은이와 목회 혹은 행정 사무를 시작하려는 다른 곳의 젊은이들을 위한 대학교 레벨의 커리큘럼 모두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전 collège de Rive와 같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당시의 자유기예 교육과정의 표준을 차용함으로써 학교의 전문성과 개혁신앙의 에 대한 강력한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더 낮은 단계에서는 콜레주(collège)나 스콜라 프리바타(schola privata)로 알려진 곳에서 규칙적인 시편 찬송, 매분기 성찬 한 주간 전에 목사의 방문, 주일 교리문답 예배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교리문답 교육과 규칙적인 기도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신앙 지식을 함양하기를 지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개혁신앙을 가르치는데 있어 다양한 모든 방법(교리교육서, 설교, 기도 등등)은 말하기 그리고 글쓰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과 그의 동료들은 시편 찬송 사용법을 개발했을 때, 개혁신앙을 가르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칼빈은 그 스스로 스트라스부르의 망명한 프랑스인 회중들의 목사로 삼년간 있는 동안 몇 편의 시편찬송가를 작시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시인 클레망 마로(Clément Marot)와 칼빈의 동료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는 1562년까지 완성된 시편 찬송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곡을 붙였으며, 남아있는 시편 찬송을 작시했습니다.

시편찬송은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전체 곡들을 부를 수 있도록 예배하는 동안 순차적으로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교회에서 시편을 무반주로 제창하였습니다. 첫해에 모든 사람들이 멜로디를 배우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노래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 따라서 선창자가 노래 부르는 것을 돕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3) 현대에는 응용적이고 실용적인 학문과 구별되는 말로써 순수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나 중세기에는 문법, 논리학, 수사학, 음악, 천문학, 기하학, 수학의 7가지 영역을 의미했다. 르네상스 이후에는 문법, 논리학, 수사학은 트리움(trium)으로써 인문학의 영역으로 수립되고 자유기예에는 지위가 격상된 건축, 조각, 회화가 포함되기도 했다. 역주.

또 다른 경우에는, 스콜라 프리바타(*schola privata*)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성가대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정규 교과과정의 한 부분으로 하루에 한 시간씩 시편 찬송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네바 사람들은 역시 집에서 화음을 넣어 시편찬송을 노래했습니다. 제네바로부터 제네바의 시편집은 예전서(worship book)와 신앙의 원천으로 유럽의 종교개혁 지역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헝가리로, 프랑스에서 화란으로, 독일의 종교개혁 지역으로, 개혁교회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제네바에서 기원한 멜로디로 시편 찬송을 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편찬송을 함께 부를 기회를 가지기 원합니다. 저는 한국어와 불어와 영어로 된 한 시편 찬송을 골랐습니다. 한국어로 된 가사는 스크린으로 보일 것입니다. 저는 불어로 1절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시 1절부터 4절까지 영어나 한국어로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반주로 노래할 것입니다. - 아마 이미 무반주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아노나 오르간 같은 악기 없이 큰 그룹으로 노래하는 이러한 경우는 처음 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노래를 듣고, 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일어서 주십시오. 만약 화음을 넣어서 부르기를 원한다면 1절이 끝나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제네바 시편찬송으로 시편 100이 여기 있습니다. 처음은 불어로, 이제 영어나 한국어로 노래하십시오. 놀랍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십시오.

저의 요지는 주님의 마음에 개혁신앙을 수립하기 위해 음악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정기적인 시편 찬송 연습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집과 교회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 사이의 긴밀성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지역의 성인들이 중요한 텍스트를 외워서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가졌을 때, 신앙의 기초에 대한 교사로서 섬겼거나 섬길 수 있었습니다. 1542년에, 예를 들어 사도신경을 배우려고 노력했던 제네바인 자끄 에민(Jaques Emyn)은 제네바 당회에 그가 사도신경을 외는데 도움이 되는 학생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개혁신앙에 대한 공부에서 유익을 얻은 학생들이 어떻게 그들이 얻은 지식을 광범위한 지역사회에서 개혁신앙의 수립을 상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었는지 그 예를 봅니다.

다음은 개혁 신앙의 한문과 개혁신앙의 수립 사이의 연결이 특별히 강했던 특정한 그룹, 말하자면 목사들에게로 되돌아가 봅시다. 종교개혁 초기 특히 목회를 필요로 하는 지역들(가령 프랑스, 스코틀랜드, 스위스 같은)에서 충분한 수의 목사들을 발굴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자 울리히 츠빙글리와 그의 동료들은 도시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골의 교회를 위해서도 목사들을 발굴했습니다.

취리히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총 130명의 목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츠빙글리의 후계자, 취리히의 담임 목사(chief pastor)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가 1532년 도시의 행정 장관들에게 했던 연설 속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각하(My lords), 우리 도시와 시골에 130명의 사람들은(목사들) 있어야 합니다. 후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취리히와 그 외 다른 곳에도 목사에 대한 수요는 아주 많았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단순히 이전에 카톨릭 사제였던 사람들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전략은 목회적

범위를 지키고 연속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전에 카톨릭 사제였던 당사자가 카톨릭과 개혁신교회의 교리적 차이에 대해서 명료하지 않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취리히 교회는 새롭게 개혁신교회 목사가 된 사람들, 프로페차이(*Prophezei*)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이 모임은 한 주간 내내 열렸고, 라틴어와 독일어로 설교하는 것과 이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주해 훈련 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이들을 뒤따랐습니다. 제네바는 그들의 교구(*congrégations*)를 가졌고, 영국의 청교도들도 그들의 비밀집회(*conventicles*)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목사가 그들의 주해 능력들의 연마와 교리적 일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수과정(研修: in-service training)의 선택은 종교 개혁 목사들 일세대의 설교와 교리의 단일성 속에서 고도의 능숙함을 향해 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신교회의 목사(*clergy*)들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과 기대는 변했습니다. 모든 강단을 채워야한다는 한때의 압박은 경감되어갔고, 교회지도자들은 미래의 목사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훈련 고안과 잠재적인 목사 후보생을 점검하는 새로운 방법을 한 걸음 물러나서 심사숙고 하려했습니다.

1550년대에서 1560년대 까지 개혁 주의적 고등 교육기관의 수적 증가는 미래의 목사들을 가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미래 목사들의 고도의 학문적 훈련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보 목사들은 숙련된 동료들을 따라다니며 배울 수 있었던 더 옛날의 (목회)준비 모델은 점점 목회 후보생들이 거치는 유사한 코스들과 임명되기 전보다 보다 더욱 표준화된 방법으로 시험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학문에 기반을 둔 목회준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중기의 차세대 목사를 위한 학문적 교육과정은 무엇처럼 보였습니까? 개혁주의 학교와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학습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신구약의 주해과정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수업을 동반한 채로(대부분의 학생들이 라틴어 학교 교육에서 시작했던) 가르침의 대부분을 형성하였습니다.

16세기 중반까지 몇몇의 개혁주의의 학습 중심지들 중 많은 학교들은 각각의 교리적 개념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토대를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나 고대의 저자들로부터 인용을 주제별로 사용하여 교리를 학습하는 접근방법, 필립 멜랑히톤(*Philip Melanchthon*)의 로키 코뮤네스(*Loci communes*)적인 접근을 모델로 하여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그들이 비공식적인 토론이나, 모의 설교로 배운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것, 선행과 좋은 교훈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개혁주의 학교나 대학에 다니는 사람에게 사역을 위한 준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위자들은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네바, 스위스, 프랑스, 화란, 그리고 신성로마제국 안에 있는 개혁주의 학교 대부분은 학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학위는 신성로마제국이나 교황으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학교의 교수들은 그들의 가까운 학생들에게 학생이 성실히 강의에 참석하고, 토론과 설교실습에서 진보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고상하게 생활했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를 주곤 했습니다.

어떻게 16세기 후반까지 목사 후보생에 대한 조사와 학문적 훈련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는지 아는 한 가지 방법은 미래 목사들과 정규 학업과정을 거치지 않은(재정 부족, 시간 혹은 능력 부족이든 간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목사로 인정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초 화란에서는 대학교육 정도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교회 포지션에 대한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은 동인도 회사 배의 목사가 되거나, 지켄트로스터(ziekentrooster) 혹은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7세기 초 스코틀랜드에서는 교회에서 다년간 독경사(reader)나 권면자(exhorter)로 섬기는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훈련되고 임명된 목사에게 의해서 대체되기 쉬웠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 교회에서는 국가적 대회(synod)는 주기적으로 “방랑목사(vagabond pastors)”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교회에 의해서 보증되지 않고 검사되지 않고 이 경계 목록에 올라온 목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경계하려 하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방랑목사”들은 갖가지 도덕적 흠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에서 그들의 문제는 비정통적인 교리에서 기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17세기 초반에 목회자가 됨에 있어 가능한 루트가 많았던 비교적 더 자유롭고 열림 시스템에서 목사직으로의 접근방법이 개혁주의 학교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위임된 공부 기간과 교회의 조사위원회의 관찰로 일원화 되는 방향으로 임명된 목사직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차세대 목사들이 임직 전에 학교와 대학에서 보내었던 시간에 대한 증거를 보이는 것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는 그들의 사역과 목사의 구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로 조사위원회는 목회 후보생들이 단일한 방식으로 조사되고 그들의 능숙함을 판단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취리히에서 1603년 까지 차기 목사들에 대한 관찰은 꽤 엄중했습니다. 그들은 설교 시험에 이어 인문학에서 두 부분으로 구성된(필기 1회 구두 1회) 인문학 시험과 두 부분으로 구성된 신학 시험(교리와 성경 지식)을 맞아야 했습니다.

둘째로 미래 목사에게 대한 유사한 수업과정과 유사한 시험에 대한 요구는 그들의 목회자가 공통적으로 붙드는 교리와 주해적, 설교적 접근법을 담지하고 있을 것이라 교회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과 시험의 엄청난 단일성은 목사의 견해의 단일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때문에 목사는 개혁신앙의 전달에 대한 주된 통로 중 하나였기 때문에 교회는 개혁주의 교육기관에서의 훈련의 일치성 회중의 개혁 신앙 설립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목회자 후보생의 능숙함을 측정하는 조사 절차와 학문적 요구는 몇 가지 유익을 제공하지만 저는 이 운동 역시 오늘날의 교회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몇몇의 중대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논증하려 합니다. 대학 수준의 훈련의 요구는 목사직의 전문화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그들의 일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그것 자체로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는 역시 그들의 회중과 목사 사이에 깊은 분열이 있기 쉽습니다. 특별히 농촌지역에서는 결국 목사만이 그 지역사회에서 대학이나 학교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로 개혁교회 목사직은 젊은 목사는 나이 든 목사의 딸과 결혼하고 목사의 아들이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는 경향 속에서, 뭔가 폐쇄적인 모임이 되었거나 폐쇄적인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접근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목사와 회중의 세계관과 경험 사이의 격차를 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목사가 보여주어야 했던 기량과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6세기 말까지 개혁주의 학교의 연구는 크게 기량 습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설교하는 법, 개혁교회의 교리를 방어 하고 다른 고백적 관점을 반대하는 법,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고 이해하는 법들 말입니다.

조사위원회는 결국 주로 외부적 요소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목회후보생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가? 목회후보생들은 정통교리를 지지하고 있는가? 설교할 수 있는가? 목회후보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올바르게 도덕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게 된 것은 목회적 기량,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역자로의 내적 소명, 한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의 삶을 포함하는 쉽게 측정될 수 없는 좋은 목사의 특징들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8세기와 19세기 까지 많은 경건주의와 부흥운동이 발흥하는 흐름에서 목사들을 훈련했던 개혁신학의 고등교육기관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움직임 모두 회중들과 목사를 향하여 마음의 내적 갱신을 강조하였고 전통적인 개혁주의 학교와 대학에서 제공했던 더욱 공식화되고 구조화된 훈련과정 새로운 기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1832년에 제네바에서 복음주의 사회(Evangelical Society)에 의해 설립된 “*é cole de théologie libre*”를 포함한 새로운 교육기관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독립된 신학기관은 1816년 어간의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종교적인 부흥으로부터 출현하여 따로 떨어져 나온 개신교회를 위한 목사를 훈련했습니다. 이 학교는 1922년까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부흥운동이 만든 따로 떨어져 나온 교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더 잘 고안된 고등교육기관은 1880년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노력 덕택에 설립된 엠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Amsterdam)입니다(“자유”는 국가의 대학 망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은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적 수행 평가 기준을 기초로 하여 사역에 대한 학생의 적합성을 주로 판단하고, 기량을 제공하는 심화된 전통적인 개혁 신학 모델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왔습니까? 명백히, 종교개혁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리더는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교리교육서, 설교, 시편찬송, 공식적 교육, 목회자의 관찰과 훈련에 대한 주의 깊은 집중)으로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개혁신앙의 수립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섯 세기를 되돌아봄으로써 눈여겨 볼만한 것은 이러한 리더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표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혼란과, 자원의 부족과, 경합하는 목적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한 근거를 이해하는 개혁주의적 강조점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계속 되어야 합니다.

